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난다!?

(골3:12~25)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난다!?> 그리고 느낌표와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느낌표는,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난다, '아! 맞아, 내가 경험적으로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말이야!'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난다, 물음표, '모든 경우에 과연 그럴까?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야만 되는 경우는 없을까?'

이 제목은, 어느 한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느 글로부터 인용한 겁니다.
몸과 마음의 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공간적인 거리가 있고 시간적인 거리가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거리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습니다.

의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앞으로 가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앞에 가있습니다.
근데 몸은 그 앞의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가있는 마음과 달리 거리가 먼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불안을 느끼고 이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은 앞으로 가있는 마음을 쫓아가고 쫓아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리를 좁히려고 쫓아가는 몸 앞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방해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집니다.
마음은 꼭 이루고 싶다는 소원과 비전 쪽에 가있는데 몸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살이 나고, 그래도 몸살이 나면 다행인데 건강해서 몸살도 안 나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견디다보면 이게 그만 암으로 발전하고 한 번 터지면 끝장나버리는 그런 경우로 발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몸과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속상하세요? 지금 돈 문제로 걱정하시면 마음과 몸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돈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돈 문제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현실 속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거리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몸과 마음의 거리가 있는가 하면 또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정말 속상하고 뼈까지 마음이 슬픈 일을 당했어요.
젊은 엄마가 유치원 나이의 아이를 데리고 조기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오신지 6개월 만에 한국에 있는 젊은 아빠가 혼자 단칸방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지나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니…
나중에 제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 젊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전화로 힘들고 외롭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꼭 '괜찮아, 너하고 우리 아이하고 잘 지내서 공부 잘하게 되면 난 괜찮아'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왔으니까 남편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의지해서 괜찮으려니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러기아빠들이 태평양을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가있는 캐나다에 가있어요, 몸은 대한민국 땅 서울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태평양을 끼고 살고 있으니 병이 안 나겠어요?
몸과 마음 사이에 태평양이 끼어있으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데, 우리가 지금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사람이라면 새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사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타락 이전의 본래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옛사람, 지금도 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음과 몸과 영이신 하나님, 이 세 요소의 조합방식에 따라서 본래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새사람으로 말하자면 정반대로 반드시 몸과 마음의 거리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나는 것은 옛사람의 경우가 아니겠어요?
마음이 캐나다의 아내와 자식에게 가고 몸은 서울에 남아있어도 몸과 마음이 거리는 있지만 연결이 돼있는 겁니다, 이게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알을 빼서 시신경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면, 눈은 시신경이 이어진 채로 캐나다의 가족들을 보고 있고, 몸은 한국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그쪽으로 가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조합을 이루지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신경의 줄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가있을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늘어나서 분리돼서 태평양을 끼고도 몸과 마음은 조합을 이루어서 연결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경우는 거리가 확보되기는 확보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조합이 깨어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간적으로 앞에 가있거나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가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과 땅 사이라는 다른 차원의 거리를 두고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러기아빠가 몸과 마음 사이에 태평양을 끼고 사는 것을 수직으로 세워놓으세요.
태평양의 수면이 수직으로 섰어요, 그렇게 위로 거리가 있게 사는 것이 새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혀 새사람다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은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같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걸 우리가 명령형으로 받아들여서 이대로 '겸손하라'라고 했다고 '겸손하자'로 받아들이면 율법주의적 구조로 다시 우리가 말려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열린다, 이런 것처럼, 새사람이라는 나무가 되면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근데 새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자, 혹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택하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생활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일에 빼기는 마음을 다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다, 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백설 같은 마음으로.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므로 세상에 대해 끌려가던 마음이 죽어야 백설 공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고 그렇게 백설 같은 마음을 십자가로 회복해야, 타락 이전의 본래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순백의 마음이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다 더럽혀졌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매번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거룩해지고, 백설의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이제 사랑 받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마음의 비어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마음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늘에 가있습니다.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유지된 채로 살아가는 게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기러기아빠가 태평양을 끼고 마음은 캐나다에 있고 몸은 서울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태평양을 끼고 사느라고 그렇게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새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 살아가는데, 이상해요.
이 세상에서 내 비전과 현실 사이를 끼고 살아가는 것도 시간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간적으로 태평양을 끼고 살아가는 기러기아빠 같이 사랑하는 무엇과 공간적으로 헤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이상하게도 새사람이 태평양 같은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끼고 살아갈 때는 묘한 일이 나타나요.
내가 새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안겨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상태로, 몸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 몸과 마음이 거리를 둔 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 사람을 만나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온갖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의 자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절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맥락에 맞게 번역하자면 친절함이에요.
어떨 때 친절합니까?
나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고 길을 몰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느껴지면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 해결을 위해 40일 약정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니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 문제 때문에 자식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김 집사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는 주인공이 김 집사님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김 집사님이 마음의 부담과 문제의식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뜻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아무리 김 집사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못나고 한심해보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온유에요, 온유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왜 따뜻하고 부드럽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안 되도록, 마음이 강퍅하고 딱딱하면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또, 왜 오래 참습니까?
언젠가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몸과 마음 사이의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날이 있겠지, 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 있을 정도로 다른 차원을 끼고 있으면서 거리가 벌어지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모습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기 전에, 마음이 이 땅에서 몸과 조합을 이루어서 이 땅을 헤매고 다니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고 불행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 받았잖아요.
나의 죄악 됨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죄가 뚜렷하게 보이기만 하면 괴로울 텐데, 죄가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을 욕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내 처지를 내가 뚜렷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얘깁니다.
이게 다 몸과 마음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차원의 간격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서,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얘기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의 모습들이 결국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랑의 성분들이라 이 얘기에요.
사랑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만날 때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져서 마음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느낌인 기쁨 때문에, 몸이 있는 이 땅에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몸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다 줄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위쪽으로 벌어져서 사는 이 새사람 됨의 삶을 알려주는 것, 이게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내게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다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자마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나를 향한 사랑을 또 확인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아담이 백설의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씻음 받고 십자가로 생활화함으로써 유지하는 백설의 마음일 때 하나님과 조합을 이룹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지속되는 게 평강인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딸깍 하는 원샷으로 사진을 찍는데, 동영상은 그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찰칵찰칵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평강은 그 기쁨이 동영상처럼 쭉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와! 했다가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마음과 육체의 조합을 깨버리고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요,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깨지는 거니까.
매 상황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이어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몸이 살고 있는 동안 죄의 습성이 계속 작용합니다.
죄의 습성이란 마음이 자꾸 몸에 가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잊고 살면 30분 1시간도 못 돼서 다시 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잠시도 잊지 않아야 육체와 마음의 조합이 깨진 상태가 유지되고,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계속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평강이 유지되고, 그 평강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사람을 만날 때, 내게 불가능한 긍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의 대상은 차별이 없어요.
이 건희 씨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요.
그러나 그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붙어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돈 많지만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의 생활화를 모르는 사람들, 자연인이나 불신앙인,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하! 참 안 됐다, 돈이 많아서 뭔가 이룬 줄로 알고 살고 있으니까 더 안 됐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사람 됨.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몸과 마음 사이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음으로써 새사람의 새사람 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끼고 사는 기러기아빠의 몸과 마음의 거리를 위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연결돼있는 신경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리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가 깨지는 상태, 이 깨어짐으로부터 새사람 됨이 나타나서 기쁨이 동영상이 되는 평강,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옛사람에게서 나타난 몸과 마음의 조합이 깨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새사람 됨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